

# ‘카드수수료 갈등’ 고조… 당국 재산정 딜레마

마트-롯데카드 ‘보이콧’ 장기화  
카드사-가맹점 갈등 심화 우려

당국, 적격비용 재산정 늦어져  
카드사 “산정주기 연장” 목소리

한국마트협회의 롯데카드 ‘보이콧’이 장기화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태를 시작으로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3년마다 진행되는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주기가 돌아왔다.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은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판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한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지난 12년간 진행했지만 단 한차례도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았다.

카드업계는 상반기 내에 재산정 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롯데카드와 한국마트협회 간 마찰이 발생하면서다. 마트협회는 롯데카드가 카드사 중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



서울시내 한 마트 입구에 A카드 ‘보이콧’ 현수막을 걸어놓았다. /김정산 기자

하고 있다며 가맹점 해지라는 강수를 뒀다.

카드업계에서는 롯데카드와 마트협회 간 분쟁으로만 바싹 안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마트협회의 보이콧이 다가오는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의식한 일종의 ‘시위’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통상 적격비용 재산정은 연초, 늦어도 상반기 내에 매듭짓는 경우가 일반

적이다. 그러나 올해 재산정 논의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지난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문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주목도가 높고 예민한 사항인 만큼 정치권에서 총선 전 관련 논의를 주저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수수료 인상이 반갑지만 금융당국이 쉽사리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며 “카드사와 가맹점의 갈등 구도가 길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여전히 카드사의 이상적인 시나리오

는 가맹점 수수료 인상이다. 가장 큰 이유는 조달비용 상승이다. 고금리 여파가 이어지면서 채권발행비용이 올랐다.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채(AA+, 3년물) 금리는 연 3.75%를 나타냈다. 가장 최근 적격비용 재산정이 이뤄진 지난 2021년 여전채 금리가 연 1.5%였던 점을 감안하면 2배 넘게 치솟았다.

이마저도 AA+ 등급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비씨카드)에만 해당한다. 우리·하나카드의 경우 AA등급, 롯데카드는 AA- 등급의 여전채를 발행한다. 같은 잔액을 조달하더라도 더 높은 비용이 드는 것.

카드업계는 현실적으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늘려줘야 한다는 입장이 다.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기업 운영에 안정성을 높여달라는 것.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상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만큼 대기업이 양보해야 한다는 게 현재 정서와 잘 맞아떨어진다”며 “하지만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면 대출서비스 확대 등 또 다른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보험 브리핑



정경선 현대해상 CSO(오른쪽)와 지동섭 SK SUPEX 추구협의회 SV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해상

## 현대해상-SK그룹 사회적기업·소셜벤처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

현대해상이 SK그룹과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다.

◆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맞손  
현대해상은 SK SUPEX 추구협의회 SV(Social Value)위원회와 지난 3일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 가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행사와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 및 주최한다.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스타트업의 육성지원과 CSR 사업에서도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경선 현대해상 CSO는 “협약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사회문제해결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교보생명 유병력자·고령자 위해 보장·연금 혜택 강화

교보생명이 종신보장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 유병자보험 건강보장 라인업 확대  
교보생명은 유병력자와 고령자를 위해 3대 질병을 포함한 주요 질병을 평생 보장하고 치료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교보간편평생건강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3가지 질문에 답하면 최소한의 심사로 가입이 가능하다. 고지함목은 ▲3개월 내 질병 확정진단·의심소견,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조건 ▲2년 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5년 내 암·간경화·파킨슨병·루게릭병·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등이다.

고령층이 보험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가입나이를 70세까지 늘리고 보험료 납입기간을 다양하게 선택하도록 했다. 저해약환급금형으로 가입하면 납입기간에 일반형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대신 동일한 보장을 더 낮은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건강보장이 가장 필요한 유병력자와 고령자를 위해 진단보험금을 확대하고 중복 보장, 치료 후 연금 지급 등 혜택을 강화해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객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 이재근 “넘버원 금융사간 제휴… 혁신 사례로 남을 것”

(KB국민은행장)

KB국민은행-삼성금융네트웍스  
‘모니모’회원 전용 입출금통장 등  
차별화된 금융 상품 라인업 구축

KB국민은행이 삼성금융네트웍스와 손잡고 입출금통장을 시작으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KB국민은행은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와 업무협약을 맺고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금융 플랫폼 ‘모니모’ 내 뱅킹 거래 및 금융 상품·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금융 분야의 두 선두 기업간 상호 협력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강화하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삼성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삼성금융네트웍스를 대표해 김대환 삼성카드 사장과 이재



KB국민은행과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삼성본관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금융네트웍스를 대표하여 삼성카드 김대환 사장(왼쪽 다섯번째)과 이재근 KB국민은행장(여섯번째),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 모니모 관련 업무 담당 임원, KB국민은행 임원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근 KB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KB국민은행이 보유한 상품 경쟁력과 채널망을 활용하고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 제공으로 모니모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며 “이번 제휴가 넘버원(No.1) 금융사

간 제휴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성공적인 혁신 사례로 남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사는 삼성금융네트웍스의 모니모 내 차별화된 혜택을 갖춘 금융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를 지속 제공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과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첫 협업 사례로 모니모 회원 전용 입출금통장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통장은 모니모에서만 가입 가능하며, 삼성금융네트웍스 및 모니모 이용 수준에 맞춰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로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양사는 상품 출시에 앞서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양사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모 전용 금융 상품·서비스 공동 기획 ▲모니모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 ▲디지털 기술 교류 ▲데이터 분석·활용 등 지속 가능한 협업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안상미 기자

# 삼성물산 “외부상가 식음료, 로봇이 배달해 드려요”

뉴빌리티와 협업 ‘딜리픽미’ 로봇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 시범운영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 뉴빌리티와 협업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실외 로봇 배송 서비스인 ‘딜리픽미’를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의 자율주행 로봇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제한적 공간 내 운영에 그쳤지만 작년 10월과 11월 도로교통법과 지능형로봇법이 각각 개정·시행되면서 허용 지역 외에도 운행안전

인증과 보험을 가입한 로봇의 실외 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딜리픽미 서비스는 아파트 단지외부 상가를 연계한 실외 로봇 배송 서비스다. 지난 2020년 준공한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입주민은 주문과 동시에 자율주행 로봇이 픽업부터 복잡한 골목과 횡단 보도를 건너 단지내 배송까지,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인근 상가의 식음료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최소 주문금액의 제한 없는 무

료 배송을 비롯해 입주민 전원에게 구매 쿠폰 증정과 매월 최대 이용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가진 뒤 배송범위를 확대하고, 개인 집과 택배를 세대 앞까지 배송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로 넓혀갈 계획이다.

조혜정 삼성물산 Dxp사업본부장(상무)은 “로봇이 실생활에 파고 들어 입주민에게 편리함을 더하고, 미래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시범



음료 픽업을 위해 상가로 이동중인 ‘딜리픽미’ 로봇. /삼성물산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적용이 가능한 주거 단지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